

Etofenprox 음독 후 발생한 급성 신손상의 1예

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신장내과

신 현 종 · 이 주 학

Acute Kidney Injury after Pyrethroid Poisoning

Hyun-Jong Shin, Joo-Hack Yi

Division of Nephrology,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

배 경: Etofenprox는 가성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살충제로 80년대 초 해충을 구제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. 피레스로이드는 해충의 나트륨채널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신경독성, 과흥분, 및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포유류에서는 독성이 최소화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 일반적으로 쥐에게 있어서 반수치사량이 4,000 mg/kg 이상일 정도로 독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람에게 노출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국내외에 보고가 없다. 이에 본 저자들은 Etofenprox 음독 후 급성 신손상이 발생하여 투석치료를 받은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.

증 례: 60세 여자 환자로 내원 전날 Etofenprox 계통의 살충제 약 500 cc (100 mg)를 자살목적으로 복용 후 속쓰림과 호흡곤란을 주소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. 환자는 3개월 전 부터 고혈압으로 항고혈압제를 복용하고 있었으며 이외에 다른 특이 병력은 없었다. 내원 당일 아침에 소변 소량 (50 cc 이하) 본 이후 내원 당시 무뇨 상태였으며, 전신 부종과 흉부 X-ray에서 심비대와 폐울혈이 관찰되고 혈액요소질소 106 mg/dL, 크레아티닌 8.4 mg/dL로 급성 신손상을 보여 응급투석을 실시하였다. 무뇨 지속되어 지속적 신대체요법 사용하였고, 입원 5일째부터 다시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고 입원 12일째 이후 2,000 mL/day 까지 소변양 증가하여 입원 27일부터는 투석 중지하였다. 투석 중지 이후에도 소변량 잘 유지되고 크레아티닌 2.3 mg/dL까지 호전되었다.

결 론: 일반적으로 피레스로이드 계통의 살충제는 저 독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직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보고된 바 없다. 본 증례에서는 etofenprox를 과량 섭취할 경우 투석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급성 신손상에 이를 수 있음을 관찰하였으며 투석치료와 보존적인 치료로 신기능이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보고하는 바이다.

Key Words: 피레스로이드, 급성 신손상, 혈액 투석

Pyrethroid, Acute kidney injury, Hemodialysis